

월요논단



김 성 은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뭄바이 총영사

인도에는 스페인과 중국처럼 세계적 인 문화유산이 많고 다양하다. 1983년 아잔타-엘로라 동굴, 아그라성과 타지마할부터 시작돼 2019년에 38번째로 자이푸르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필자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인도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실제로 열아홉 군대를 직접 찾아가 봤다. 오늘은 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공작왕좌(Peacock Throne)와 인도가 아닌 영국에 소재중인 코이누르(Koh-i-Noor) 다이아몬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도(印度) 알기 10 : 문화 유산

왕좌 윗부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2개의 공작이 있어 명명된 공작왕좌는 무굴제국 전성기 샤 자한의 명령으로 7년에 걸쳐 만들어져 레드포트 내 황제의 개인 집결실에 비치돼 있었다. 1660년대 인도를 여행했던 프랑스인 장-바티스트 타베르니에에 의하면 길이 1.8m, 폭 1.2m, 높이 1.2m에 이르렀는데, 4개의 기둥 사이 중간기둥은 커다란 루비로 장식됐고, 200개 이상의 루비가 사용됐다고 한다. 그 제작비용은 타지마할 건축비용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3배 이상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 왕좌는 루비, 다이아몬드, 석류석, 진주, 에메랄드, 금 등으로 장식됐으나, 루비가 가장 인기가 높고 비쌌는데, 그 이유는 무굴제국이 보석들 중 루비를 가장 좋아하는 보물인들의 후예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다. 사실 무굴은 몽골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1739년 페르시아 나디르 샤가 코이누르와 함께 이 왕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렸다. 이 중 일부는 왕관 보석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스만 제국에 팔아넘겼다. 이 왕좌의 가치가 대단해서 나디르 황제는 3년간 세금을 거두지 않았을 정도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사라진 전설상의 유산이 돼버린 것이다. 다음은 코이누르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디르 황제가 델리 침공 시 빼앗고는 이를 본 후 "코이누르!"(Mountain of Light)라고 감탄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지금의 텔랑가나주 골콘다 광산에서 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초에는 191캐럿(38.2g)이었으나, 1852년 리 커팅 후 105.6캐럿(21.12g)으로 줄어들었다. 이 보석은 당시 최대의 다이아몬드였던 만큼 이를 탐내는 자들 또한 많았다. 알루딘 칼지가 남부 인도 침

략 시 획득한 이래, 델리 술탄들, 무굴제국을 건국한 바부르, 샤 자한, 아우랑제브를 거쳐 나디르 황제의 손에 들어갔다가 아흐마드 샤 두라니와 그의 후손을 거쳐 시크 황제에게 넘어갔고, 제2차 영-시크 전쟁 직후인 1849년에는 공식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양도됐다. 이후 대대로 영국왕가에서 상속됐는데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안전상의 사유로 런던타워에서 원저 공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지금은 런던타워 주일 하우스에서 공개전시 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보러 방문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간에는 코이누르 소유권을 둘러싸고 외교적 논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인도는 독립하자마자 1947년과 1953년에 반환을 요구했고, 2000년에는 인도 의회가 공식 서한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엇그제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추가 개정안 발의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대로 영국왕가에서 상속됐는데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안전상의 사유로 런던타워에서 원저 공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지금은 런던타워 주일 하우스에서 공개전시 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보러 방문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간에는 코이누르 소유권을 둘러싸고 외교적 논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인도는 독립하자마자 1947년과 1953년에 반환을 요구했고, 2000년에는 인도 의회가 공식 서한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 개정안을 우리 나라 내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엇그제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추가 개정안 발의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대로 영국왕가에서 상속됐는데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안전상의 사유로 런던타워에서 원저 공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지금은 런던타워 주일 하우스에서 공개전시 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보러 방문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간에는 코이누르 소유권을 둘러싸고 외교적 논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인도는 독립하자마자 1947년과 1953년에 반환을 요구했고, 2000년에는 인도 의회가 공식 서한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열린마당

안전한 겨울나기 첫 걸음, 주택용소방시설



김 남 석  
제주시 노형119센터

겨울철을 오가는 사람들의 옷이 두꺼워지고 도로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왔다. 기온이 낮아지면 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등 다양한 난방용품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이에 따라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시설의 특성상 심야 시간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주택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5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주택화재

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총별 1개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즉각 알려주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율적이고 그 능력은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주변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겨울을 값비싼 난방 기구를 구매하는 대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자.

뉴스-in

원 지사 '수돗물 유충' 불편 공식 사과

“종합적 처방책 마련할 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수돗물 공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재발 방지책과 함께 도민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 원 지사는 “지난 한달간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편을 드려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다시는 유충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수도 시설관리 전반의 문제를 점검·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충 사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종합적 처방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점언. 백광택기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대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도 노력하겠다”고 발표. 이 교육감은 지난 13일 추모사

를 통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대일 열사의 발언을 언급한 뒤 “50일이 지났어도 우리는 열사의 말을 소중히 교훈으로 떠올리고 있다”고 평가. 이어 “사람이 존엄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다짐. 송은범기자  
연기했던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주시가 이달 4일부터 공공체육시설이 개방됨에 따라 연기했던 생활체육대회를 이달말 개최. 이달 7~15일 제14회 제주시체육회장이 주관하는 제8회 제주시생활체육대회 전도파크골프대회, 다음달 5일에는 줄넘기대회 등 5개 종목에서 7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폐회식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참가자 명부작성은 물론이고 경기장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제주 코로나19 연쇄 발생... 상황 엄중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울철을 앞두고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 확진자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가을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상황과 맞물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주 연이어 2명 발생으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합니다. 지난 11·12일 관광 온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잇따라 판명돼 현재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같은 시기 제주를 다녀간 1명도 경기도에서 확진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연쇄적으로 발생,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지역감염 확산 분위기로 세 자리수 이상을 연일 기록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14일 205명, 15일 208명으로 이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높았는데도 200명대 확진자 기록은 기파른 확산세를 보여줍니다.

지난 8일 이후 8일 연속 세 자리수 증가세인데다 수도권 이외 지역감염 추세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겨울철 대유행 조짐이라는 해석마저 나옵니다. 이 시점에 관광객들은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10월 관광객수 100만명대 초과에다 지난 13일 하루 방문객만도 4만5000여명을 기록, 여름 휴가철 이후 최대치를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몰릴수록 느슨해질 방역수칙 준수에다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추가 접촉자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일부 미착용 사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사회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올 겨울 대유행을 원천 봉쇄해야 내년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 방역 당국 모두 대유행 대비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강영호(前 제주예총회장·서양화가) 어머니 경주김씨 춘(향년 98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4일 오전 9시에 별세 하셨습니다. 사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6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요일) 오전 6시 4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아흔아홉골 가족묘지  
아 들 강영호 며느리 문정옥  
손 자 강경필 손 부 현은미  
경덕 줄리  
손 녀 강주연  
혜순 손 서 한 규  
은숙 손 서 한 규  
은정  
증손녀 강서진 위증손녀 한 지 유  
지윤  
※ 연락처 : 문정옥 010-3691-5808  
강경필 010-3698-8626  
강경덕 010-5393-253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달중(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 인 현무생  
아 들 문창민 며느리 오현희  
딸 문영란 사 위 강영일  
매 자 부창민  
제 자 현상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순흥안씨 보아(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아 리 허한권 며느리 김은옥  
허 진 김귀자  
딸 허복선 사 위 강승옥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일백(향년 10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아 들 승원 며느리 고정인  
승두 정혜순  
딸 춘임 사 위 김일환  
정임 김재필  
신임 문영호  
진의 양대진

단체반수시모집  
즐거워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탈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땡고, 민요  
시간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댄스스포츠 단체반: 자이브, 룸바, 왈츠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6시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 오후 8시  
자격: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탈라댄스스쿨  
중앙터미널 2층 ☎753-5308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편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심마음 작물과 소토  
제주 먹고사리뿌리와 등글레뿌리  
퇴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용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